

#### 담배에 관한 나의 의견

나는 담배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도, 부정도 않습니다. 누구나 담배를 필 권리가 있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합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듯이, 기본적인 도덕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피우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장기간 피게 되면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담배가 매우 각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도 어릴때는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담배를 줄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담배를 피워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안됩니다.

나는 담배피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서 좀더 자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심이 있다면, 사회는 좀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담배라는 기호품이 생활가까이에 있다고 해도 보다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